

추석 가정예배

1. 조용한 기도 ----- 다 같이

2. 찬 송 ----- 488장 ----- 다 같이

1. 이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주 예수뿐일세 우리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없도다
2. 무섭게 바람 부는밤 물결이 높이설렐때 우리주 크신은혜에 소망의 닷을주리라
3. 세상에 믿던 모든것 끊어질 그날되어도 구주의 언약민사와 내소망 더욱크리라
4.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보올때 구주의 의를힘입어 어엿이 바로서리라
후렴)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3. 기 도 ----- 가족대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추석 명절이 있기까지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모든 가족이 강건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 성경말씀 ----- 출 23장 14-19절 ----- 다 같이

[14]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키지니라 [15]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 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16]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17] 네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18] 너는 네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19]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 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5. 말 씀 ----- 하나님을 기억하라 ----- 가족 중 한명

사람들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잊어버릴 수 있기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일, 아프고 괴로웠던 일, 억울하고 분했던 과거가 하나도 빠짐없이 남아서 나를 괴롭힌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망각은 그래서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죽을 수 밖에 없는 나, 사망으로 달려가던 나를 살려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억하고, 지켜야 할 세 절기를 알려 줍니다. 첫째는 무교절입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합니다. 둘째는 맥추절입니다.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깨닫게 합니다. 셋째는 초막절(수장절)입니다. 광야 40년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들을 지킬 것을 명하신 것은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결국 절기 준수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요 신앙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은 반드시 실패와 절망으로 끝난다고 경고합니다(신 8:11). 둘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한가위 명절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온 가족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이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2022 하늘양식 참고>

6. 함께 드리는 기도 -----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을 이룬다는 믿음으로 우리 입술에 늘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 찬 송 ----- 304장 ----- 다 같이

1.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못하네 저 높고높은 별을넘어 이 낮고낮은 땅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 하셨네
2.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위의 영화쇠할때 주 믿지않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3.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후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8. 주기도문 -----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